

코미디영화 풍성... 제2의 '극한직업' 탄생할까

올해 연초부터 포진... '관객이 가벼운 코미디 선호' '해지지않아' '미스터 주' '히트맨' '정직한 후보' 개봉

올해도 어김없이 코미디 영화들이 연초에 포진해 관객을 기다린다. 동물 소재 코미디부터 콘트 액션까지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여러 소재 영화가 개봉해 작년 초 '극한직업'과 같은 흥행 재현을 노린다.

남이 의욕만 앞서는 태주의 후배 만식으로 출연했다. 알리 목소리는 신하균이, 다른 동물들 목소리는 유인나, 김수미, 이선균, 이정은, 이순재, 김보성, 박준형 등이 연기했다.

같은 날 개봉하는 '히트맨'도 정보국 요원이 주인공이지만 웹툰이라는 소재를 차용했다. 이 영화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전설의 암살 요원이 그리지 말아야 할 1급 기밀을 술김에 그려버리면서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겟이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영화다. 권상우가 전직 국정원 요원 준을 연기했고 이 밖에도 정준호와 이이경이 출연한다.

다음달 12일에는 라미란 주연 '정직한 후보'가 개봉한다.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둔 어느 날 거짓말을 못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라미란이 거짓말쟁이에서 진실만 말하는 주상상을 연기했으며 김부영이 그의 보좌관, 나문희는 손녀의 거짓말로 숨어 살게 된 할머니를 맡았다. '김종욱 찾기'(2010)와 '부라더'(2017)의 장유정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처럼 연초에 코미디 영화가 대거 개봉하는 것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다. 무거운 현실을 영화관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은 관객들이 연초 코



해지지않아



미스터 주



히트맨



정직한 후보

미디 영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유정 영화평론가는 "지난해 '극한직업' 학습효과로 올해도 연초에 코미디 영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극한직업'도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재미만 있다면 올해 개봉하는 코미디 영화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도 장점이다. 정지숙 평

론가는 "명절에는 무거운 메시지가 있거나 사회 비판적인 영화보다 보기 편하고 가벼운 영화가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며 "웃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도 최근 개봉하는 코미디 영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미디 등 특정 장르 영화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비슷한 장르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현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골든디스크 음원 대상 '방탄소년단'

빅히트 방시혁 대표 대리수상 '더 큰 결실 확산' 소감 전례

방탄소년단(BTS)이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일 오후 5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시상식에 불참한 방탄소년단을 대신해 상을 받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이사는 "뜻깊은 골든디스크 음원 대상 주인공인 방탄소년단,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더 큰 결실을 이뤄갈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방 대표가 대신 읽은 편지에서 "우리 노래를 사랑해주신 전 세계 아미 여러분 늘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작자상을 받기도 한 방 대표는 최근 대중음악계 현실을 염두에 둔 듯 빼어난 수상소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상 후 "2019년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작자로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을 통감한 한 해이기도 했다"면서 "이 책임을 모두가 나눠서 짊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상은 잔나비, 엠씨더맥스, 이지, 악뮤, 청하, 제니, 폴킴, 태연,



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그룹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제작자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골든디스크 사무국 제공. 연합뉴스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등 10팀이 받았다.

2018년 10월 31일~2019년 10월 31일까지 발매된 곡 중 디지털 음원 이용량 60%, 전문가 심사 40%를 반영해 수상팀이 가려졌다.

신인상은 걸그룹 있지와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두 팀에게 돌아갔다. 베스트솔로상은 마마무에서 솔로로 변신한 화사가 차지했다.

올해 행보가 기대되는 팀에게 수여되는 상인 넥스트제너레이션은 김재환과 보이그룹 에이비씨, 에이티즈가 가져갔다. 베스트 R&B 혼합상은 지코가, 트로트상은 송가인이 수상했다.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뮤비 유튜브 7억뷰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7억 뷰를 돌파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께 유튜브 조회 수 7억건을 넘겼다.

이를 통해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붐바야', '마지막처럼'까지 K팝 그룹 중 처음으로 7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4편 보유하게 됐다.

지난 4월 공개된 '킬 디스 러브'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41위로 진입하면서 K팝 걸그룹 최고 순위 기록을 세웠다.



송강호 만난 '송강호 팬' 브래드 피트.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송강호와 만나 두 손으로 악수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기생충' 미국 배급사인 네온은 3일(현지시간) 자사 트위터 계정에 "송강호 팬인 브래드 피트가 송강호를 만났을 때"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네온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빌보드 '빅뱅, 공백기 끝낸다' 오는 4월 미국 코첼라 출연 주목

그룹 빅뱅이 오는 4월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빌보드도 이에 주목했다.

빌 보드는 '빅뱅이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를 시작으로 공백기를 끝내는 데 착수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앨범 발매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그룹 빅뱅이 이제 돌아왔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멤버들의 입대와 슬리 경찰 수사로 인해 그룹 활동이 중단된 후 첫 복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빅뱅이 그

룹을 유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지난 몇년간 빅뱅 멤버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법적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빌 보드는 이날 또 다른 뉴스인 '코첼라 출연진: 즉각 반응 10가지'라는 기사에서 "빅뱅은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최초의 K팝 보이그룹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전역 후 재결합한 이들에게 중요한 2020년이 될 것을 암시한다"고 썼다.

빅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리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4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무대에 오른다. 빅뱅은 지난해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연예계를 떠나면서 4인조로 개편됐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and rows of TV program schedules.

Today's Fortune (오늘의 운세) 6월. A section providing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and celebrities.